

“청년·신혼부부·취약층 임대주택 늘려 주거복지 실현”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정수미 LH광주전남 본부장

경제학에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이론에 입각한 사상의 개혁을 ‘케인즈 혁명’이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를 예견하고 정부의 개입 즉 공공 지출의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당시 만연했던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었고, 1873년부터 1896년까지의 ‘대불황’,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그의 경제학은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고전학과, 신자유주의 등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이론이 나왔지만, 케인스의 주장은 포스트 케인스, 네오 케인스로 더 견고하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케인스의 주장은 미국 프랭클린D.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 유명한 뉴딜 정책, 유럽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근간이 된다. 특히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국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 재정을 투입해 지원·보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公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시장이 제공하는 민간서비스와 경쟁하는 것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기업들은 민생 최



전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실행에 옮긴다는데 그 중요한 가치가 있다. 기업이 중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LH는 국민 주거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46조4000억원, 매출 13조6000억원, 직원 8769명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진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부동산이라는 업

용적률만 높여준 인·허가로 광주 도심 고층아파트 공공시설 태부족 민간주택 공급 과잉이지만 광산구 산정지구 등 공공개발 필요

무영역을 담당하며, 역대 정권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무량판 구조 설계 등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 조성, 공공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사업에 교차 보전함으로써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LH의 중대한 역할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 최근 시장에서 민간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주택 공급을 보다 늘려 다양한 계층이 그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LH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일보는 최근 정수미(57) LH 광주·전남본부장을 만났다.

광주 출신인 정 본부장은 1991년 입사해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개발 전문가(Developer)로 경험을 쌓았으며, 본사에서 도시경관 설계 및 도시계획업무 총괄을 역임했다. 최근 2년간 광주·전남본부에서 건설사업처장으로 일하다 지난 1월 2일 최초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성 본부장에 임명됐다.

전남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뒤 바로 다음날 출근해 33년간 근속한 그녀는 지독한 LH 사랑꾼이다. 자그마한 체구로, 제1기 신도시 일상을 시작으로 전국 개발 현장을 누빈 정 본부장에 LH의 나아갈 방향, 광주 도시 개발의 문제점, 주거 복

지 서비스의 미래 등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어떤 곳인가.

▲1980~90년대 두암·하남·문흥·일곡·풍암·첨단지구, 2000년대 수완지구, 용산지구 등을 비롯해 나주빛가람혁신도시, 선운·효천지구를 조성하는 등 택지를 개발하고 영세민과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최근에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선운2공공주택지구 등 과산정공공주택지구·고흥우주발사체·나주에너지산단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되는 사업들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보다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주거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LH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주요 업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불미스러운 일(지난 2021년 3월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정갈 열심히 일한다. 영구임대주택부터 장단지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계층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공공분양주택 공급, 부동산 금융 등 주택사업, 신도시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도시 재생, 도시 정비, 국유지 개발, 노후 건축물 정비 등 도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산정지구 개발로 시끄러운데(광주시는 공공택지지구 지정 동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역시민단체들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으로,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동 일대 168만3000㎡에 인구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3000세대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의 반대가 있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광주형일자리 주거 지원 등 광주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여전히 공공개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주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2만호 이상 필요하며, 주택가격 상승 및 급리 인상으로 무주택 서민의 공공주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민간주택은 공급 과잉일 수 있으나 공공개발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개발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산정지구는 우수한 교통여건과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개발압력이 높아 민간소규모 개발 시 기반시설 부족 등 상당한 문제점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LH는 현재 개발부지 내 저수지를 모두 보존하는 등 최대한 자연 지형을 살리고,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도 수준 높게 배치하는 등 가장 최근의 개발 트렌드를 접목시킬 예정이다. 공공주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공개발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두바이식 초콜릿 구입 행렬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팝업매장에서 고객들이 두바이식 초콜릿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8일까지 최근 SNS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식 초콜릿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두바이에서 직수입한 피스타치오 원물로 만든 수제 페이스트와 카다이프면으로 만들어진 두바이식 초콜릿은 고소하고 풍미 가득한 맛이 특징이다. 두바이식 초콜릿은 한 개에 1만9500원이고, 준비된 물량만큼만 한정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11월29일까지 ‘아이조Wa 이벤트’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경품 제공

광주은행이 비대면으로 자녀를 위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면, 캐시백 등 경품을 제공하는 ‘아이조Wa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이조Wa 이벤트는 광주은행 ‘광주 Wa뱅크 앱’에서 ‘아이Wa계좌 개설하기’를 통해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하면 CU편의점 5000원 1매를 지급한다.

또 ‘아이Wa 계좌&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개설된 체크카드를 1만원 이상 사용 시 CU편의점 5000원 1매와 5000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아이Wa 서비스는 계좌·체크카드 신설 및 발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동 제출할 수 있어 영업점 방문 없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와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진행되고, 혜택 제공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응모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아이Wa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발급, 영업점 방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편리한 계좌 개설과 더불어 경품 증정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7월 경매 넘어간 전남 부동산 70% 늘었다

679건...57개월만에 최다

전남에서 지난달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7월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67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401건)보다 69.32%, 앞서 올해 가장 건수가 많았던 1월(512건)보다도 32.6% 많은 수치다. 특히 692건을 기록한 지난 2019년 10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강제 경매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승소할 경우, 채권자가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증서)을 통해 압류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권에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임의경매와는 다르다.

지난달 강제경매 개시 결정등기를 신청한 전남 지역 부동산은 토지가 73%(513건)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13%(88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물은 11.48%(78건)를 차지했다. 전남지역의 올 7월까지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177건)보다 21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103건(15.1%)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74건(10.9%), 고흥 52건(7.7%), 무안 48건(7%), 여수 47건(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광주 북구 ‘굿잡 매칭’ 기업·구직자 호응

기업 동영상 제작·홍보 지원

우수기업 발굴 인재 채용 알선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광주 북구청과 함께 ‘북구 굿잡 매칭 사업’을 벌여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기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북구 굿잡 매칭 사업은 광주 북구청과 함께 첨단과학국가산단과 본촌산단 등 북구 관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 동영상 제작 및 홍보 ▲취업 상담·알선 ▲구인·구직 기업 설명회 ▲채용 예정자 현장 견학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5개 기업을 발굴해 동영상 제작에 25개사를 지원하고, SNS에 홍보하는 등 참여기업 근로자와 구직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임금과 복지제도 및 혁신역량 우수기업인(㈜나눔테크, NH네트웍스㈜ 등) 10개사를 선정해 온·오프라인 홍보, 기업 채용 설명회 및 현장 견학 등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북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한 우수기업 동영상은 대표이사 직접 출연해 복지혜택과 미래 비



광주경총이 지원하는 ‘북구 굿잡 매칭 사업’ 중 일환으로 제작된 지역 우수기업인 남광글라스 홍보 동영상 한 장면.

전을 설명하고 실제 근무환경, 회사 분위기 등을 엿볼 수 있어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경총은 기업 홍보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기업이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 일자리 지원기관 등을 통해 구직자를 직접 만나는 채용설명회 성격의 ‘기업 GOGO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여명의

구직자가 필요한 일자리를 얻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지역 내 산단과 농공 단지에 우수한 기업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는 이미지로 인해 구인구직에 있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단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계 인프라 건설 투자, 2040년 3조8천억달러로 증가 전망

신중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 투자가 2040년에는 3조8000억달러까지 증가하면서 프로젝트파 이낸싱(PFI) 대출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건설 산업적 가치 재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해외 건설시장 규모가 중국·스페인 기업 위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5조5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과거 미국·프랑스·일본에서 중국·스페인 등 후발국들로 주요 플레이어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유가에 따른 중동 국가의 재정 여력 확대에 의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주와 2033년까지 약 5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도 새로운 건설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전 물가안정에 총력

농식품부 “성수품 물량 확보”

정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명절 성수품 사과, 배 등 성수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급 계획을 세우고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6.2%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6%)을 웃돌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과(39.6%) 등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된 데다 배 가격은 154.6% 올라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부터 햇사과가 출하되며 사과 도매 가격은 지난 2일 10kg에 4만4341원으로 전달 대비 22.9% 내렸다. 배 도매가격도 15kg에 9만4278원으로 44.5%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이달 중순

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 배 생육이 작년보다 양호하다”며 사과는 평년 수준으로, 배는 평년 이상으로 각각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13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2	6	14	27	38	3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542,367,898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8,036,471	56
3	5개 숫자일치					1,527,453	2,861
4	4개 숫자일치					50,000	144,842
5	3개 숫자일치					5,000	2,471,592